

不均衡 지속될 세계食糧

—FAO 1985年 需給

展望綜合報告—

調 查 部

오는 85년의 세계 食糧사정은 어떻게 변화 될것인가? 기한급수적인 人口增加, 增産 의 한계성등으로 말미암아 85년에는 세계 食糧사정이 현재보다 더욱 惡化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하면 農業에 대한 투자增加, 可耕地의 확대, 농업기술 개발 및 비료생산증대등에 힘입어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도있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최근 85년의 세계식량수급전망에 관해 종합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보고서는 세계의 食糧사정은 85년에 가서도 先進國공급과잉, 개발도상국 공급부족이라는 70년대의 불균형 구조가 계속될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전체의 需給面에서 볼때 穀物과 魚類는 生産量이 需要量을 약간 상회할것이나 肉類는 약 3백 70만톤의 부족이 예상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모든 종류의 食糧이 크게 부족될 전망이다.

85년의 세계穀物생산은 수급 균형을 이룰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수요공급은 7천 6백만톤의 공급부족이 예상되어 食穀이 중요한 政治武器로 사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우기 개발도상국중 아르헨티나, 泰國등과 같은 소수의 穀物輸出國을 除外하면 85년에

개발도상국전체의 穀物不足量은 1억톤에 달할 전망이다.

穀物の 품목 별 전망을 보면 小麥은 先進國의 생산증가로 85년에 1억 2천 3백만톤의 잉여가 예상되는데 그래도 개발도상국들은 3천 6백만톤의 輸入이 불가피할 것이다.

쌀은 녹색혁명, 기술개발등으로 전세계생산이 4억 4천 7백만톤에 이를 것이나 主消費地인 東南亞地域의 人口증가등으로 균형을 이루기는 어려울것 같다.

肉類 및 魚類는 세계각국의 所得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動物性 단백질 수요가 급증, 85년에는 牛肉 및 羊肉 소비량이 현재의 2배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각국이 肉類增産에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해도 소비수요를 충족하지는 못할것 같다.

한편 85년도 세계牛肉수요량은 5천 9백 80만톤으로서 부족량은 1백만톤인데 羊肉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된 수준이다.

牛肉의 전체적인 需給은 주로 세계牛肉生産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있는 先進諸國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데 이들 國家중에서 앞으로 EC의 牛肉자급도가 높아가고 또 오세아니아의 輸出이 증가함에 따라 先進國의 경우에는 약간의 剩餘가 나타나게 될것이다.